

월요광장

강진 칠층사를 기억하자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우석대 석좌교수

호남은 분명히 충신·열사들의 본고장이다. 임진왜란·병자호란 그 뒤의 수많은 국난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목숨을 바친 사람이 가장 많은 지역이 호남이었다. 오죽했으면 충무공 이순신이 "호남이 없었다면 나라도 없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었겠는가. 더욱 눈물겹고 감격스러운 일은 나라를 위한 전쟁에서 목숨을 바쳐도 후자의 몸이 아니라 부자·형제·숙질 등 가족이 함께 목숨을 바치는 경우가 호남 사람들에게서 유독 많았다는 사실이다.

임진왜란 시절, 금산전투에서는 특히 많은 호남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는데 제봉 고경명, 학봉 고인후 부자가 함께 순국했고 큰 아들 준봉 고종후는 또 진주성 전투에서 순국했다. 진주성 전투에서 김천일·김상헌 부자가 함께 목숨을 바친 것

도 유명하며, 학포 양팽손의 후손들인 제주 양씨 3형제의 순국도 유명한다. 양산 룡·양산숙·양산수가 바로 그들이다. 보성의 선(宣)씨 문중에는 오충사(五忠祠)가 있는데 선운지·선형·선거야·선세강·선악해 등 5명이 한 집안에서 나온 충신들이었다.

인간의 목숨이 어떤 것인가. 나라를 위해서 그런 귀중한 목숨을 헌신짝처럼 던질 수 있는 충신들의 고향이 호남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자료가 또 근래에 나왔다. 위에서 언급한 충신들이야 역사에 혁혁히 빛나는 사실(史實)도 벼슬도 증직되고 시호도 내렸다. 하지만 역사에 묻혀 크게 알려지지 않은 해남 윤씨 가문의 칠층사(七層祠)에 배향된 인물들이 있다. 임진왜란·병자호란 시절 강진에 거주하던 해남 윤씨 한 가문에서 형제·숙질의 일곱 충신이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함께 죽음을 맞이했던 비극의 역사였다.

칠층사는 강진군 공동면 화방리 소재의 사당으로 지명을 따라 '화방사'(華嚴祠)라고 부르는데 해남 윤씨 강진파의 일문(尹縵)·윤신(尹紳)은 형제요, 그 두 분 형님의 아들인 윤치경(尹致敬)·윤동철(尹東喆) 네 숙질(叔侄)이 순절한 충신이다. 양근 군수 윤익경(尹翼慶)과 그

아우 판관 윤익경(尹益慶)은 형제로 순국했다. 윤익경의 아들 윤동로(尹東老) 또한 순절하여 세 숙질이 함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이렇게 한 가문에서 일곱 충신이 배출된 것이다. 온 문중에서 단 한 사람의 충신만 나와도 세상에 이름난 가문이 되는데, 한 가문에서 일곱의 충신이 나왔다면 어디 그 일이 쉬운 일이겠는가.

며칠 전 해남 윤씨 중앙종친회장과 몇 분 종친회 임원들이 나를 찾아와 '화방사지'(華嚴祠誌)라는 책자를 보여 주는데, 바로 해남 윤씨 일곱 충신의 사적을 기록하고 사우(祠宇)에 관계되는 내력을 함께 기술한 책이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순국한 충신들의 탁월한 역사를 자손들의 미약함과 지방 유지들의 소홀함으로 묻혀 있던 일이라 했다. 순조 23년인 1823년 뜻있는 선비들의 공론과 후손들의 노력으로 사우(祠宇)가 건립되었지만 또 고종 5년 1868년에 서원 훼철에 따라 사라진 사당이 되고 말았다. 1926년에야 역사적 사실이라도 기록으로 남기자며 뜻있는 고을 유림들의 노력으로 '화방사지'라는 책이 간행되기에 이르러 마침내 일곱 충신들의 업적이 조금이라도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역사를 잊고 사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한 가문에서 일곱의 충신이 나와 나라를 위한 전투에서 목숨을 바친 순국열사들인데 이런 충신들의 의혼을 잊고 살아가는 민족의 장래가 있을 수 있겠는가. 다행히 윤씨 종친회에서 일곱 충신들에 대한 현양 사업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일에도움을 주어, 묻힌 역사가 다시 살아나고 사들이 가는 충의의 정신과 애국심이 살아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일곱 충신들의 몸을 바친 애국심이 없고 서야 당시의 나라가 이름이라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인가. 해남 윤씨 한 가문의 혁혁한 애국심은 이제라도 밝게 현양시켜야 한다.

다행히 현 정부는 그동안의 정부와 다르게 애국자나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에 대한 현양 사업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국난에 처하여 중앙에서 멀리 떨어진 사골 애국자들의 활동은 알려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라도 멀고 먼 지방에서 일어난 많은 애국 운동도 정확히 발굴해서 귀한 충의의 정신을 발양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고

법창(法窓)을 들여다보니



배동진  
전남도 법무담당관

행정 심판은 최근 4년간 연간 평균 353건, 소청은 최근 4년간 연간 평균 47건, 소송은 2018년 기준 119건이다. 소청은 징계를 받은 당사자들이 제기하는 것으로 징계를 받은 이들이 모두 소청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징계 건수는 더 많다고 보면 된다.

소청은 공무원이 성실 의무, 청렴 의무 등을 위반해 행정벌을 받고, 이를 제기한 것으로 최근 4년간 소청 188건 중 취소와 무효 10건, 변경(감경) 35건, 각하 2, 취하 13, 기각 74, 계류 54건으로 인용율은 23.9%이다. 소청심사위원회가 구제 기관임을 감안하더라도 인용율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행정 심판을 살펴보자. 최근 태양광, 풍력발전소 건설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데, 시장·군수는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 사례가 상당히 많다. 허가 사항이 제량 행위라 해도 심하다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정부는 부족한 전기 생산을 위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점유율 7%(2019년 현재)를 2030년 까지 2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방침이므로 법적 기준을 충족하면 허가해야 하는데, 현실은 정부 정책과 반대 방향의 모양새인 것이다.

또 청소년들에게 해로운 술을 팔다가 적발된 업주는 1~3개월 영업 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고 아우성이다. 어느 주유소는 기름을 섞어 팔다가 적발되는가 하면, 장애 등급을 합리적으로 하지 않거나 돼지 축사 신축은 무조건 거부하는 지역도 있다.

신고는 수리 사항인데, 수리를 거부하는가 하면, 허가 조건을 충족하는데도 불허가하는 행정 기관, 개발 행위 관련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무력화하려는 주민들의 불법 시위, 사법 기관이나 준사법 기관에서 처벌을 받고, 행정 심판과 소청 등을 청구한 당사자들이 구술 심리 때 경찰 조서 등을 부정하는 등 당사자나 제3자인 주민들이 때를 쓰는 탐진치(貪瞋癡)의 민낯을 보게 된다.

신고는 수리 사항인데, 수리를 거부하는가 하면, 허가 조건을 충족하는데도 불허가하는 행정 기관, 개발 행위 관련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무력화하려는 주민들의 불법 시위, 사법 기관이나 준사법 기관에서 처벌을 받고, 행정 심판과 소청 등을 청구한 당사자들이 구술 심리 때 경찰 조서 등을 부정하는 등 당사자나 제3자인 주민들이 때를 쓰는 탐진치(貪瞋癡)의 민낯을 보게 된다.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고, 곡직을 판단하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관련자들의 민낯을 보는 데, 심지어 행정 심판이 열리는 회의실에 들어가게 해 달라거나 회의실 밖에서 큰 소리를 치는 등 '때발'과 민낯을 만나면 답답해진다.

법을 다루는 당사자들과 제3자인 주민들이 '법대로 하자'며 행정 심판을 제기해 놓고, 법을 벗어나 사무실을 찾아와

공무원을 겁박하거나 막말을 해대며 소란을 피우며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태를 참고 참아야 하는 고통과 비애는 씁쓸하다. 공무원이니까 참아야 하는 법은 없다.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하면 형법 제136조에 따라 공무 집행 방해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법대로 처리하라고든 마음이 꺾먹 같은 때도 없지 않은 것이다.

한편, 행정 심판 재결과 소청 결정은 당사자 및 행정청을 기속하는데 행정 심판의 재결에 불응하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선택적 관찰'이라는 오류에 빠져 자신이 믿는 것과 일치하는 것만 선택해 바라보면서 남이 오류에 빠져 있다고 감정적으로 대하는 경우도 있고, 재결 처분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해 행정의 어려움을 심각하곤 한다.

행정 처분에 대해 다루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고, 결과는 허비의 쌍곡선을 그리지만 법이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본다. 어느 경우든 당사자에게 상처를 남기고, 감정적 대응은 더 큰 아픔을 주는 법이다. 상처가 생기기 전에 다름을 줄이거나 없애는 묘안은 없는지 창밖 오룡산 위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하곤 한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의 것이다'라는 법언을 떠올리면서.

기고

리바이어던(Leviathan)의 횡포



조영탁  
광주대 IT자동차학과 교수

질이 좋아질 리가 없다. '고인 물은 썩는다'라는 속담은 함축하는 뜻이 있지만 과학적인 말이 아니다. 팔당댐에 고인 물은 안 썩는다. 이 단순한 속담을 치수(治水)라는 지극히 공학적인 작업에 갖다 붙이는 것은 어리석다. 물이라도 많아야 희석이 되고 침강을 통한 정화가 일어난다. 현대적 공법으로 애써 설치된 보를 다시 수천 억 원을 들여서 해체하려 함은, 탈원전을 추구하면서 다른 나라에는 원전을 팔아먹겠다고 하는 것 이상의 블랙 코미디다.

한편 공영 방송 KBS가 '태양광 사업 북마전'이라는 제하에 태양광 사업의 폐해와 부조리와 허구를 보도(KBS 시사기획 '황' 2019년 6월 21일)하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발끈했고, KBS가 재방송을 결방하면서 외압 논란으로까지 확산됐다. 이쯤 되면 필부들은 술자리에 서하는 말 한마디도 조심하게 되는 형편이다.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도 지금 '최저임금'이나 '근로 시간 제한' 제도를 손보자는 이야기를 못한다. 표 때문이다. 좌나 우나 다 그렇다. 그 폐해를 뻔히 보면서

도 함구한다.

하지만 대학에 몸담고 있는 필자는 당장 8월부터 시행될 '강사법'에 대해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각 대학들은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선 의'로 개정된 새 법규에 의거하여 강사들을 써야 하는데, 이 법이 곧 발표된다. 현대적 공법으로도 이미 1만 여명의 강사들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한다. '일단 임용하면 두 학기를 연임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대학으로서는 두 번째 학기에 강의를 맡길 교과목이 없는 경우 난감해진다.

또 한 강사에게 6학점 이상을 줄 수 없다는 제한이 있다. 강의를 맡아주지 말고 가급적 많은 강사들을 고용하라는 것, 즉 '일자리 쪼개기'다. 실업률 관리에 열마나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강사들에게는 6학점 강의만으로 먹고 살라는 말이 아닌가? '주 52시간'이라는 또 다른 강제는, 조과 근무를 해서라도 더 벌고 싶은 순수하고 당연한 젊은 육방을 투잡, 쓰리잡으로 내몰지도 모른다. 리바이어던(Leviathan)의 횡포가 아닌가. 충격적인 사고의 기억이 채 가시지 않

은 그 다뉴브 강의 나라 헝가리는 참 기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였다. 초기에 기독교 편에 섰다가 몽골군에 짓밟히고,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는 패전국 편에 서더니, 결국 소련의 위성 국가로 전락하여 경제 파탄으로 죽을 고생을 했다. 그랬던 헝가리가 자유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한 이후 현재 사상 최대의 경제력을 이루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의 오늘도 그런 역사적인 '선택의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크기가 정해진 파이(pie)를 '공평하게 나누기'에 몰두하여 국가가 국민의 경제활동을 통제할 것이 아니라, 시장과 개인의 자유로운 노동 의지를 존중하며 경제라는 파이를 자꾸 키워나가도록 해야 한다. 과거의 헝가리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독특한 줄서기를 해야 함은 물론이다. 사실 멀리 헝가리까지 갈 것도 없이, 그렇게 줄을 잘못 서는 바람에 세계 최빈국으로 고생하고 있는 북한을 바로 옆에서 보고 있으니, 우리가 설마 그런 우(愚)를 범할 리는 없을 것이라고 믿으면서도, 나는 어쩔 수 없는 '우(憂)파'인 모양이다. '근심 우'자다.

社說

한국 다이빙 첫 메달 달아오르는 대회 열기

김수지(21)가 한국 다이빙 사상 최초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메달을 수확했다. 수영 전체로 시야를 넓혀도 경영의 박태환 이후 한국에서 8년 만에 나온 세계선수권 메달이다. 메달 획득이 유력시되던 우하람(21)은 단 9점 부족으로 4위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우하람은 어제 광주광역시 광산구 남부대 시립 국제수영장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다이빙 남자 1m 스프링보드 결승에서 6차 시기 합계 406.15점을 받아 4위에 올랐다. 하지만 4차 시기까지 1위 5차 시기까지는 2위를 달릴 정도로, 색깔이 문제일 뿐 메달 획득이 가능해 보였던 터라 더욱 아쉬움이 컸다. 그래도 한국 남자 다이빙의 세계선수권 역대 최고 순위를 '4위'로 올려놨으니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여자 다이빙에서는 우리 선수가 한국 다이빙 역사상 최초로 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전남 같은 장소에서 열린 대회 다이빙 여자 1m 스프링보드 결승에서 5차 시기 합계 257.20점으로 김

수지가 3위에 오른 것이다. 김수지는 이종목 최강 천이원(중국·285.45점)과 미국의 사라 베이컨(262.00점)에 밀렸지만, 캐서린 토랜스(영국·255.40점)를 4위로 밀어내며 당당히 시상대에 올랐다.

김수지는 1-2차 시기 갈끔한 연기로 2위로 올라섰고, 3-4차 시기에도 동작을 차분히 완수하면서 2위를 지켰다. 막판 5차 시기에 잠시 흔들려 점수가 깎였지만 추격하던 토랜스에 3위 자리를 넘겨주지 않으면서 귀중한 메달을 챙겼다. 김수지는 이번 대회 우리나라 첫 메달이자 한국의 역대 세계선수권대회 다이빙 종목 최초 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이에 따라 대회 열기도 더욱 고조되고 있다.

김수지는 불모지와도 같았던 한국 다이빙에 작은 씨앗 하나를 뿌렸다. 그 씨앗을 뿌린 김수지는 "앞으로 비인기 종목인 다이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녀의 바람이 이뤄지기를 바라며 대회가 끝날 때까지 수영대회 열기가 지속되었으면 한다.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로 도약 꿈꾼다

전남도가 민선 7기 새 비전으로 '블루 이코노미'(Blue Economy)를 내걸었다. 섬과 해양, 하늘, 바람, 천연 자원 등 청정하고 풍부한 블루 자원을 활용해 미래 신성장 산업을 개척하겠다는 전략이다. 김영록 지사의 이 같은 비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전폭적인 지지를 천명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근 전남도청에서 열린 '전남 블루 이코노미 비전 선포식'에서 문 대통령은 "블루 이코노미가 전남 발전과 대한민국 경제 활력의 '블루칩'이 될 것"이라고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남도는 이 자리에서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Blue Energy),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Blue Tour), 바이오 메디컬 허브(Blue Bio), 미래형 운송 산업(Blue Transport), 스마트 블루 시티(Blue City) 조성 등 5대 프로젝트를 통해 분야별 발전을 이끌어 내겠다고 보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에 이들 프로젝트의 국가 계획 반영과 한전공대 설립,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여수 유치 등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나후면 전남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이들 프로젝트의 조기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날 문 대통령이 한전공대와 에너지 밸리, 바이오 메디컬 허브, 경전선과 무안공항 등 지역 현안 사업을 일일이 언급하며 정부의 지원 의지를 밝힌 것은 그런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토대로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부터 관련 사업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관련 사업들이 다른 시도와 경쟁에서 차별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로드맵을 촘촘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중국 전국시대 말기 사람인 '위료자'는 군사 이론에 밝았다. 귀곡자(鬼谷子)의 제자로 알려진 그가 지은 책 '위료자'는 중국 무경칠서(武經七書) 중 하나로 꼽힌다. 총 24편으로 구성된 이 책은 조선 시대엔 무과 시험 과목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한때 군사 제도와 군대 조직을 다룬 3편 '제법'(制法)에 칼을 휘두르며 거리를 확보하는 강패 이야기가 나온다. 위료자는 '도적 한 명이 검을 휘두르며 저자 거리를 활개치고 다니는데 다른 사람들이 모두 숨거나 도망치는 이유'에 대해 '도적이 용감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만 못해서가 아니라 '필사'와 '필생'이라는 두 가지 정신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필사의 정신이면 살고, 요행히 살기를 바라면 죽는다'고 밝힌 '오자병법'(吳子兵法)이나, "적이 강성해서 아군이 못거머져 좀처럼 움직이려 하지 않으면(아군을)사지로 몰아넣어야 한다. 살려 고하는 마음을 끊어 버리면 필승이다"라고 주장한 '백전기법'(百戰奇法)과 일맥상통하는 지적이다.

그렇듯한 말과 비유로 포장되어 있기

는 하지만 결국 '승패는 정신 자세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좀처럼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물론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긴 하겠지만, 정신 자세나 기세에서 미국에 눌리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요즘 우리 군(軍)의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북한은 물론 주변국인 미국·중국·일본에 우리의 의지나 요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커지는 것이 사실이다. 군이야말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실제적인 힘이자 마지막 보루라는 점에서, 갑안한편, 경계에 실패한 것도 모자라 국민의 눈까지 속이는 우리 군의 정신 자세는 국민에게 커다란 실망감과 허탈감을 안겨 주고 있다.

요즘 한반도 주변 정세는 '신냉전 시대'라고 불릴 만큼 과거 어느 때보다도 위태롭다. 우방이라는 미국은 물론 일본도 동맹국으로서의 의리보다는 자국의 이해관계를 훨씬 더 우선시하는 시대. 군의 맹성과 분발을 촉구한다.

/홍행기 정치부장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政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체 육 부 220-0633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